

2015년 5월12일 화요일 오전에 맑은 후 구름 많다가 초저녁에 바람과 비 약간

오전에는 담 밑에 놔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기상예보가 저녁에 약간 비가 온다고 했지만 당장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 물을 주었다. 화분은 토마토화분 3, 고추화분 5, 가지 2, 목화 1, 땅콩1 개 그리고 야생화화분 20여개. 받아냈던 빗물로 물을 주고는 방안에서 성경필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석 큰성경을 원본으로 쓰는데 이제 구약 1331페이지 중 500페이지를 썼다. 신약까지 합치면 모두 1,754페이지이니까 아직 3분의1도 못쓴 것. 부지런히 써서 연말까지 마쳐야 할 텐데...

점심은 밥은 안먹고 썩개떡, 당근, 양배추, 고구마, 토마토등을 먹었다. 아내는 미역국에 밥을 먹는다.

오후에는 가까운 들로 야생화를 보러 갔다. 간 곳은 방절리 저류지 조성할 때 나온 흙을 성토했던 곳.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한 저류지에서 나온 흙으로 성토한 곳이다. 그곳에는 대부분이 푸르게 보이는 클로버나 알팔파다. 인공적으로 심은 것들이다. 그 중에 썩이 섞여 있다. 썩은 심지 않았지만 흙속에 있던 씨앗이 발아하여 난 것 같다. 탐스런 썩을 보니 낮에 아내가 만든 썩개떡 생각이 나서 썩을 뜯기 시작했다. 낮에 먹은 썩개떡의 썩은 어머니가 뜯어서 삶아 주신 것이었다.

나는 풀밭에 앉아 비닐봉지에 썩을 뜯어 담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였다. 썩을 오늘 생전 처음 뜯어 보았다.

작년 이맘때는 군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에 정신 없이 바빴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1분이 아까웠던 날이었다. 당연히 당선 되리라 믿었는데 낙선되고 말았다.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 보아야 안다는 말이 실감 났다. 3명 선출 하는데 8명이 출마했다. 나는 3등안에 들어야 하는데 4등을 해 낙선했다.

그동안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9급에서 4급 즉 센터 소장까지 했다. 정년3년 전에 명퇴하여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군의원 활동을 3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와 같이 선거일 날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그는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연금을 타고 있는 은퇴 공무원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은 없다. 그동안 40년이 넘게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공인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썩을 뜯는 한가한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즐겁다. 회식자리에 자주 안가니 체중도 많이 줄었다. 나처럼 명예를 많이 누리려 본 사람은 선거를 단념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적거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선거에 자주 출마 할 것 같다. 너무 한가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의원이나 조합장에 여러 번 출마하여 명예욕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내 주변에도 낙선하면서도 선거때마다 출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다.

요즘 마스크에 돈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난리들인데 내 생각에는 99% 받았을 것 같다. 아마 받아가지고 안받은 것처럼 조치를 해 놔는데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으니 몸이 단 것 같아 보인다. 나도 군의원으로 작은 정치인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게 들

린다.

1시간 넘게 뜯은 썩이 비닐 봉지로 가득하다. 무게로는 3키로정도 될 것 같다.썩 뜯느라고 야생화 살피볼 시간이 없었다. 단지 오늘 처음 연한 홍색꽃이 피는 **백선**이라는 야생화를 청령포 가는 도로 옆 산기슭에서 처음 보았다. 갖고 다니는 야생화 도감에 똑같은 꽃이 **백선**이라고 해서 알았다. 이렇게 농촌지역에는 야생화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데 있다. 단지 이름을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군청 자리에 있는 예술회관 앞에는 이팝나무 꽃이 만발했다. 나뭇가지에 흰쌀밥을 해서 밥풀을 붙여 놓은 것 같이 보인다. 도로 가 가로수 밑이나 인도 옆에는 노란 꽃의 고들빼기와 애기똥풀이 제일 눈에 많이 띈다.10여 미터에 한 두 포기는 있다.

아내에게 썩이 담긴 검은비닐봉지를 주었다. 보더니 그렇지 않아도 썩을 뜯으려 했는데 이렇게 많이 뜯어 왔다고 하면서 기뻐한다. 아내에게 맛있는 썩개떡 좀 하라고 말할까 하다가 말았다.

밖에는 바람소리가 요란하고 비도 내린다. 비는 몇 방울 떨어지다가 그치는 것 같다. 단독 주택이라서 자연의 변화를 실감하는 생활이 좋다.

저녁에는 덕포에 있는 월담도서관에서 빌려온 **씨앗혁명**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다가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2015년 제3회 5월 12일 일기 제출

성명/닉네임

원장희

이름과 닉네임(별명) 중 원하는 명칭 입력

이메일주소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나이

63

거주지

ex: 강원도 속초시

직업

무직

ex: 학생,주부,회사원,교사,공무원,무직,기타 등

태그/주제어

야생화